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 - 김해시를 중심으로 -

최영완 · 엄민호* · 김영주**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엔브이 대표 · **경상국립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교수

Improvement Plan for Promotion System of Sustainable Rural Community Building

Choi, Young-Wan · Um, Min-Ho* · Kim, Young-Joo**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CEO, NV Corporation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 (Insti. of Agri. & Life Sc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ABSTRACT : In this study, the village development promotion system was reorganized for Gimhae-si, and improvement plans and post-operation management plans were prepared through expert surveys. Through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the landscape and environment of the village were improved, and the village and residents were positively changed.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laid the foundation for regional revitalization, giving the next generation hop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village.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guidelines through case analysis of other regions, we operate educational programs for each stage by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utilize and communicate with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systematically operate, and actively intervene by Eup · Myeon administration. In addition, as a follow-up management program, various follow-up management programs were being operated, such as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such as consulting, as well as facility maintenance and support for village managers. As a result of the expert survey to review the adequacy of the improvement plan, the improvement plan derived from the overall average of 4.28 points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0 to 0.94 points for the process is judged to be appropriate. In particular, the item of 'self-reliance stage follow-up management' was very important as all experts responded with 5 points. By establishing the village development performance goals, we tried to check whether the qualitative/quantitative goals were achieved by year, and to secure quantified status data in response to changes such as resetting performance goals or adding new performance indicators.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capacity to achieve regional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rural agreement, we prepared our own sustainable village development promotion system,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follow-up management pla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for the selection of new districts and the follow-up management of completed districts by establishing the village development goals.

Key words : Rural Development Project, Community Building, Promotion System, Sustainable Development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g-Joo

Tel : 055-772-1935

E-mail : yjkim7171@gnu.ac.kr

I. 서 론

우리나라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¹⁾이 도입되면서 하향식(Top-down)의 지역개발이 상향식(Bottom-up)의 맞춤형 지역개발 형태로 변화하여 지역 특성의 발전과 지역 간 상생발전의 방향으로 새롭게 개편됐다. 또한, 2010년 포괄보조제도 도입과 함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15개 지역개발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소관부처도 조정되었다. 지자체가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17개²⁾ 시·군(도시지역과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15개 시·군 제외)을 담당하게 되었다(Choi et al., 2013).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다양한 유형(광역, 권역, 마을단위 등)과 형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등)로 발전하고 사업 운영 형태도 지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계획수립과 주민참여 형태의 상향식으로 운영되고 있다(Choi, 2015; Kim et al., 2014). 한편, 마을단위 사업은 2015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³⁾이 도입되면서 역량단계별 지원체제로 개편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역량단계를 예비단계-진입단계-발전단계-자립단계 등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필수이수 조건을 두어 상위단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했다(MAFRA, 2014).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 밀착형 사업이 2020년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광역시·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Lee et al., 2022).

MAFRA(2022a)는 농촌협약의 추진배경으로 농촌개발사업의 지방이양은 정책 주체의 이원화와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 단위의 투자가 반복되면서 농촌정책의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고, 배후마을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자치분권 강화로 읍·면소재지와 함께 정주생활권을 구성하는 배후마을 정책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읍·면소재지 거점개발은 중앙에서,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가 전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만큼 농촌지역에 지속해서 투자할만한 유인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읍·면·배후마을을 연계하여 복합 생활 SOC

거점을 확충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365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과소화·공동화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악화 등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공동체⁴⁾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강화와 개별사업 단위 지원의 한계 등에 대응하여 2020년 농촌협약⁵⁾을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다(MAFRA, 2022b).

농촌협약에 선정되기 위한 전제(필수)조건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 사업을 연계’하고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기존의 사업내용과 기간, 방식 등을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계층 생활권, 서비스 접근성, 지역민 수요조사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등)’을 운영해야 한다(Lee et al., 2022).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만들기가 지방이양 됨에 따라 기존의 자율개발(진입단계)과 종합개발(발전단계)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게 됐다. 지방이양 이전에는 주민참여를 통해 역량단계별 이수 조건을 충족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프로세스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 지방이양으로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프로세스와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배후마을은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대내외적인 흐름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이 변경됐으며, 마을만들기도 그 흐름에 따라 변천되어 정책과 추진체계, 활성화와 개선방안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읍·면소재지와 함께 정주생활권을 구성하는 배후마을 정책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가 요구되며, 각 시·군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배후마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역량 향상과 시·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협약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2021년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경상남도 김해시’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하여 농촌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민관협치형 마을만들기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 전체 읍면(7개)이 연구대상 지역이다(Figure 1). 연구 분석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완료지구의 현황과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거버넌스 현황 등의 문헌자료, 완료지구의 설문조사 자료와 다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대상 검토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Figure 2).



Figure 1. Study sites

2. 설문조사

가. 완료지구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서 단계별로 사업 추진내용과 일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료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대면조사를 수행했다(Table 1). 설문대상은 2021년 기준 김해시 마을만들기사업 완료지구 9개소 중 2021년 마을만들기사업 완료지구(4개소)의 운영위원(장)이다. 이들 완료지구는 지방

Table 1. The overview of resident surveys for Completed Districts in Rural Community Building

Part	Contents
purpose of survey	operation status of completed districts and search for revitalization plans
subject of survey	4 districts completed in 2021
survey period	2022. 3. 15.~3. 17.
survey method	on-site visit and face-to-face survey
survey cont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status of village development project - Background of the project, definition, sharing and publicity, continuity,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changes in the village after the project, etc. · Direction of village development project - Projects to be continuously operated in the village, difficulties in project promotion, important elements of village projects, necessary elements for revitalization, need to improve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promotion system · Village community related activities - Village community status (organization, rules, meetings, financial resources, reliability,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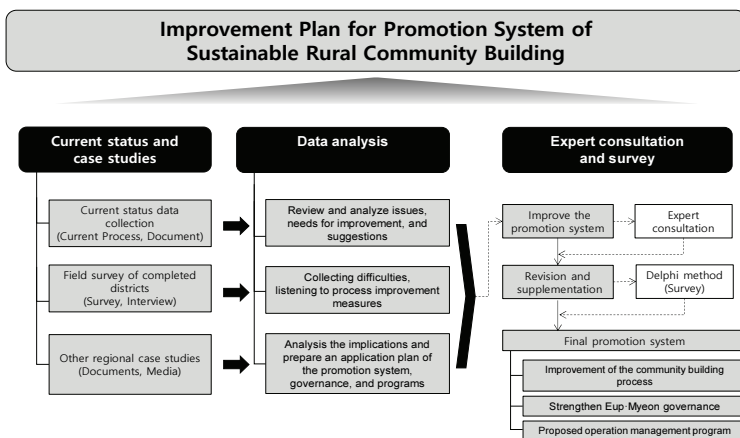


Figure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research flow

이양 직전 또는 후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김해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따르고 있다. 주민 설문조사는 현장방문 대면조사로 2022년 3월 15일에서 3월 17일까지 추진했다.

2) 조사항목

주민 설문조사 항목은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현황(추진배경, 사업 정의, 홍보, 사업성과, 참여도, 사업 이후 변화 등 6문항)과 방향성(우수사업, 사업 추진 때 어려움, 사업 중요 요소, 사업 이후 활성화 필요 요소, 추진체계 개선 필요성 등 5문항),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공동체(법인/단체) 유무, 마을규약, 마을 정기모임, 모임 재원, 운영 위/마을조직 역할 분담, 구성원 신뢰도/갈등, 행정 전문인력, 타 마을 연계 활동 등 8문항) 등으로 구성했다.

나. 전문가 설문조사(Delphi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문헌조사와 다른 지역 사례조사, 주민 대면조사 등으로 제시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의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후 개선안의 적절성과 의견 반영을 위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전문가 풀은 마을만들기사업 참여 전문가로 학계와 공공·유관기관(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사 등으로 구성하여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Delphi)로 2022년 9월 26일~10월 20일까지 추진했다.

2) 조사항목

개선안 적절성 검토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소속, 연령, 학력, 관련분야 근무/연구년수 등)과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의 중요도(항목별 중요도와 추가·삭제할 변수 또는 의견), 거버넌스의 역할(추가·삭제할 내용 또는 의견) 등으로 구성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예비단계 9항목, 진입단계 2항목, 발전단계 3항목, 자립단계 3항목으로 구성했다.

III.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김해시 마을만들기

문헌조사를 통해 경남 김해시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현황과 프로세스,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가. 사업추진현황

김해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되어 2010년 통합된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김해시 읍·면지역이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다시 편입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시 마을만들기사업의 2021년 12월 말 기준 완료지구는 7개소, 추진지구는 15개소(신규 6개소, 진행 9개소)이다.

나. 마을만들기 추진단계

김해시는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 연차·발전단계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를 선발하고 교육과 사업추진, 활성화 단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준비단계를 포함하여 총 6단계의 프로세스(준비단계-학습단계-예비실천단계-사업구상단계-사업추진단계-활성화단계)로 5년에 걸쳐 추진한다. 프로세스를 통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농촌활성화대학, 소액사업, 현장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3년차부터 실행하며 5년차 이후 활성화 단계에서 종합개발과 완료지구의 고도화 사업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다.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김해시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로 민간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이 협업하는 ‘지속 가능한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김해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역할로, 행정은 농촌협약을 총괄하는 전담조직(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을 구성하고 협약과 기획, 시행, 준공,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중간지원조직으로 김해시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농촌활성화팀을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확대·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완료지구 위원장 29명으로 구성된 민간지원조직인 ‘김해시 지속 가능 농촌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참여는 물론 사업추진지구 역량강화와 성과공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조직이다. 한편, ‘김해시 농촌마을활동가·농촌마을활동가협동조합’은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역량 있는 농촌특화 마을활동가 양성과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이다.

라. 시사점

김해시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신규마을과 재도전마을의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김해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행정과 민간, 중간지원조직 등 조직체계를 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마을만들기 프로세스(추진체계)에서 세부 역할과 기능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김해시 읍·면 행정의 역할은 사업 신청접수, 행정업무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2. 완료지구 설문조사

가. 주민인식

김해시 마을만들기사업 완료지구 중에서 설문조사 대상지구는 2021년 마을만들기사업 완료지구 총 4개소(한림면 신전마을, 진영읍 서구2마을, 진례면 하촌마을, 상동면 대감마을)이다.

설문조사 결과, 마을만들기사업 추진배경은 “마을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고령화 마을의 발전 및 활성화, 잃어버린 마을공동체 의식의 복원,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위한 마을환경정화가 필요해서”이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삶의 활기와 의지를 불러일으켜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농촌의 자활사업,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업, 농촌의 지속성을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마을만들기사업 이후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소속감과 애함심이 높아지고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과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주민들의 자신감과 성취감 향상” 등 주민 의식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나. 마을만들기사업 방향성

“마을만들기사업의 어려움”으로 주민들은 “마을주민 의견의 상호협의 과정과 반대이유 없이 사업에 반대(사업의 효율성 의심, 사업 자체에 부정적)하는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사업에 사유재산이 포함된 경우나 주민 간의 갈등 발생 때 상호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또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마을주민들이 고령인 마을에선 공모사업 신청 시 필요한 행정 서류나 회계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사업추진 때 사업주체(주민)의 참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는 계기가 되는

주민역량강화,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 등을 꼽았다.

“마을만들기사업 완료 후 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 역량 있는 마을의 종합개발사업 또는 다른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지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때 개선사항”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공모사업 신청과 사업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젊은 전문인력 지원, 마을만들기사업의 컨설팅사의 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일률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아닌 각 마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진행),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마을 사업추진 동기부여”라고 응답했다.

다.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으로 조사 대상지역 4곳 중 3마을은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법인 등)를 설립했으며, 구성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마을 재산관리와 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규약을 만들었다. 마을규약을 기준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정기총회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마을공동체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했으나, 최근에는 감염병의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마을규약 안에 마을 운영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마을사업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을 갈등 해결방법은 구성원(주민)간의 대화 또는 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 회의라고 응답했다. 한편,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전문인력이 없어 이장이나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총무 등이 사무장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4곳 중 3마을은 현재 다른 마을과 교류는 없으나, 행정이나 중간지원조직 등의 도움으로 다른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사업에 대한 경험으로 마을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종합개발사업 등 추가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다. 둘째, 완료지구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앞으로 필요한 역량강화사업과 연계사업에 대한 발걸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4개소 모두 중장기 사업추진과 미래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다소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고령자로 현재 완료된 사업이나 몇 년 이내의 사업운영은 가능하나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라. 시사점

1) 긍정적으로 변화된 마을과 주민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마을의 경관이 쾌적하게 바뀌고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된 것에 대해 대체로 주민들은 만족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변화된 마을의 경관과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쾌적한 환경은 마을리더에 대한 신뢰와 주민 인식 등을 변화시켰고 또 다른 마을사업의 추진의지를 고취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마을사업의 단계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3) 지역주민-행정-전문가 협업

김해시(행정)와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행정업무나 회계, 사업 기획,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행정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자매결연과 기관과의 MOU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과 추가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간지원조직의 현장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

마. 개선방안 도출

1) 마을만들기 프로세스

현재 마을만들기 프로세스에는 예비단계 역량강화 후 사업착수까지의 기간이 길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저하되고, 재도전마을의 재진입과 역량향상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다. 마을만들기 프로세스의 기존안은 1년차에 사업설명회와 농촌활성화대학, 소액사업을 진행하고, 2년차에 현장포럼과 계획수립,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진다. 마을만들기사업에 앞서 역량강화와 계획수립에 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때 관심도와 동력이 떨어지고 마을주민과 여건 변화, 미선정 마을의 재도전 의지가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착수 전 준비와 학습, 예비실천단계, 사업구상 단계를 1년 차 내 진행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여 예비계획에 준하는 세부계획을 도출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여 2차년도에 마을만들기사업에 착수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와 관심 향상,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완

료지구 대상 사후 운영관리체계의 단계적·점진적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2) 거버넌스

마을만들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읍·면 행정기관의 역할 부여와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마을계획 수립 때 단순 행정자로 전달 또는 신청, 접수에 그쳐 담당 직원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크다. 단순 업무지원에서 나아가 주민·행정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성 있는 사업추진과 마을 발전을 위해 전문성 강화, 추진체계 내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담당자 지정과 읍·면사무소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업무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1차년도 1월에 농촌지역개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홍보와 행정업무 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3) 재도전마을 사업참여와 관리방안

기존에는 탈락 이후 재도전마을에 대한 별도의 평가지표와 탈락과 재도전 사이에 마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방법이 없어 재도전마을의 사업참여와 관리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재도전마을의 선정평가 검토지표를 마련하여 신규마을과 재도전마을이 형평성 있게 평가를 받게끔 할 필요가 있다.

3. 다른 지역 사례 및 시사점

농식품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의 사업내용과 기간, 방식 등의 농식품부 기준을 준하되 지역실정과 특색에 맞는 역량강화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반영했다.

가. 강원도 홍천군 마을만들기사업

강원도 홍천군의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식품부의 추진체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예비단계 이전에 ‘사전이수 단계’를 두어 자체적인 소규모사업 진행을 통해 예비단계 참여마을을 선정한다. 단계별 이수 충족을 통한 사업진행으로 이전 단계를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단계의 사업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나. 경기도 가평군 마을만들기사업

체계적인 단계별(4단계)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각 단계별 사업완료 후 ‘공개오디션과 성과공

유회를 통해 마을단계 승급'을 결정한다. '현장포럼 특화(8회차 진행, 교육연극)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

1) 추진단계

진안군은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통한 살고 싶은 마을 육성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마을경관가꾸기 사업과 사업평가에 통해 '단계별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다음 단계사업을 지원하며, 단계별 이수 충족 때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2) 거버넌스

읍·면 단위의 기능과 역할을 상세히 하고 읍·면과 중간지원조직의 업무 교류를 통한 마을만들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읍·면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으로 마을지도와 감독 등 사업추진 때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라. 합천군 마을만들기사업

합천군은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의 단계별 사업추진을 통해 마을 조성부터 시설보완까지 지원한다.

마.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사업

1) 추진단계

전라북도는 '기초단계 내 성과별 평가 후 지원'을 추진한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에서는 시·군별 5개소, 총 70개소에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농촌현장포럼은 시군별 1~5개소, 총 37개소에 지원한다. 기초단계를 거쳐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면 전라북도 내 총 33개소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자율개발부문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거버넌스

전라북도는 농촌정책을 통합추진하는 전담부서인 '농촌활력과'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했다. 2015년부터 농촌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적인 추진과 부서 간 정책조정을 위해 '농산어촌공동체사업심의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회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1) 추진단계

충청남도는 '1.5단계 선행사업'을 통해 1단계의 농촌현장포럼에서 수립한 계획의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협동지와 마을역량을 높여 중앙과 도의 중규모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1.5단계 선행사업에서 마을당 3천만 원 규모의 융복합 사업(소규모 하드웨어, 중규모 프로그램사업 등)을 추진하며 이후 중규모 마을만들기사업인 2단계 새싹마을 사업을 진행한다. 단계별 이수 충족을 통한 사업 진행으로 이전 단계를 이수한 마을에 한해 다음 단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2) 거버넌스

충청남도는 10대 핵심과제인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와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통해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의 기반을 조성했다. 시·군마다 행정과 민간의 역량 수준이나 제도적 환경, 역사·문화적 풍토 등 지역 특성이 다르기에 시작점과 발전 경로는 다르므로 행정과 주민사업 연계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전문성과 현장성, 지속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 완료지구 사후관리 체계 사례

마을만들기사업의 자율개발과 종합개발단계 완료지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시설물 개보수지원(물리적 지원)과 컨설팅 지원(역량강화 지원), 제도적 지원(인적지원)의 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제도적 지원(사무장 제도)의 경우 시·군의 자체적인 재원보다 다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를 통해 마을사무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마을사무장 채용지원과 함께 자체적으로 '마을간사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진행지구(3·4단계-뜨뜻마을, 자율개발)와 완료지구(5단계-사후관리)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과 마을주민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의 마을간사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지원항목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마을사업의 운영·회계·프로그램 관리와 같이 마을 내 전반적인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마을사무장, 마을간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 시사점

다른 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사후 운영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하여 각 분야별로 시사점 도출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에 반영했다.

사업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일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예비단계 역량강화(현장포럼, 소액사업 등)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지연이나 지원제의 대상사업을 요구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침의 틀을 유지하되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하여 단계와 과정을 운영하고 마을 역량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기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시기와 프로그램의 교육방향을 검토하고 선정평가회 개최, 예비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등 재검토를 통해 추진체계를 개선했다.

다른 지역 거버넌스는 중간지원조직의 활용과 소통체계 향상, 체계적 운영, 읍·면단위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마을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서의 읍·면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균형을 갖추고 사업 활동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체계의 시사점은 완료단계(종합개발사업 이후) 마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량과 발전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의 역량강화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수, 마을사무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다. 기존 마을만들기 프로세스는 활성화 단계에 컨설팅과 다른 공모사업 추진 등 역량강화 사업지원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물리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전문가 설문 분석

이상의 완료지구 설문조사와 다른 지역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사후 운영관리체계 보완 등 사후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도출한 개선안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로 학계와 공공·유관기관(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사로 구분하여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이메일 응답방식으로 조사했다.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유효한 표본은 11명(학계 5명(45.5%), 공공·유관기관 3명(27.3%), 컨설팅사 3명(27.3%))으로 설문지 회수율은 73.3%이다. 연령은 40대 7명(63.6%), 50대 3명(27.3%), 60대 1명(9.1%) 순이다. 학력은 2명(18.2%), 석사 3명(27.3%), 박사 6명(54.5%)이다. 관련분야의 근무·연구년수는 10년 이상~15년 미만과 15년 이상~20년 미만이 각 3명(27.3%)이고, 5년 이상~10년 미만과 25년 이상 각 2명(18.2%), 20년 이상~25년 미만 1명(9.1%)으로 모두 5년 이상의 마을만들기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 단계별 중요도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단계별 중요도 평가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매우 중요하지 않음(1점), 중요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중요함(4점), 매우 중요함(5점))로 조사했다. Delphi 조사결과, 마을만들기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도 평가의 전체 평균은 4.28점이고 표준편차는 0~0.94점으로 나타나 도출된 개선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유형별로 보면, 관련 전문가(학계)는 4.19점, 실무 전문가(공공·유관기관, 컨설팅사)는 4.35점으로 실무 전문가의 중요도가 0.16p 더 높게 나타났다. 자립단계의 '사후관리 사업' 항목은 전문가 모두 5점으로 응대해 중요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예비단계와 발전단계의 '마을발전 계획수립' 항목 모두 4.73점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응대했다(Table 2).

반면, 진입단계 마을만들기사업의 착수·준공 항목과 자립단계 종합개발 마을만들기사업 착수·준공 항목은 모두 3.82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다고 응대했다. 한편, 예비단계의 사업추진마을 선정평가회(0.94점)와 발전단계의 종합개발 마을 선정평가회(0.89점)는 표준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와서 전문가들 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업운영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단계나 추진사업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이 바뀔 때 따라 이전사업들이 단절되거나 크게 변경되어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발전 또는 자립단계에서 중기계획(5년)과 장기계획(20년)으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권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발전단계별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 방향과의 부합성 평가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수범사례와 부진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추진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마을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선정평가회를 추진하고 지방이양 사업의 전문성과 선정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 차원에서 경남도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참여를 통한 선정평가회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을만들기사업 착수 후 소액사업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포함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설계내용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액사업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진행할 수 있는 사전교육과 실무 컨설팅, 마을계획에 대한 이해와 조사, 작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주민 눈높이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다.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내에서 담당부서의 역할로 마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중간지원조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와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담당부서 직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교육과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결여를 마을만들기 책자(마을만들기 이론, 실무서)를 배포하여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계절차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시스템화, 공모에서부터 시행까지 연계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체 워크숍 등 담당부서 교육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한편, 담당부서는 사업시행도 중요하지만 사업지구의 다양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확보를 통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 내 관련 부서의 팀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질적인 실무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자문위원, 지자체 내의 다양한 사회경제적조직 활동가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상시 그룹을

Table 2. The survey results for the indicators associated with Rural Community Building

Year	Step	Indicators	the times	importance factor					
				STDEV	average				
					entire	entire	academic experts [†]	practical experts [‡]	
1st	Preliminary (Sprout)	Reinforcement of competency of those involved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January	0.50	4.64	4.60	4.67	
		Hold a Rural Community Building briefing session	Promotion of Rural Community Building briefing session		February	0.79	4.27	4.00	4.50
			Demand survey for participation in Rural Community Building		February	0.69	4.45	4.20	4.67
		Rural Revitalization University		March	0.70	3.91	3.60	4.17	
		Resident-led small business	Preparation of a small business plan		April	0.52	4.55	4.40	4.67
			Small business promotion		May~ August	0.52	4.55	4.60	4.50
		Selection and evaluation meeting of the project promotion village		August	0.94	4.09	4.20	4.00	
		Rural Field Forum		September	0.82	4.45	4.20	4.67	
Planning for village development		September~ December	0.47	4.73	4.60	4.83			
2nd ~ 3rd	Entry (Branches)	Commencement of Village Development Project		January	0.60	3.82	3.80	3.83	
		Completion of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econd half	0.54	3.91	3.80	4.00	
4th	Development (fruit)	Comprehensive development village selection evaluation committee		August	0.89	4.00	4.00	4.00	
		Rural Field Forum (comprehensive development)		September	0.77	4.00	4.00	4.00	
		Planning for village development		September~ December	0.47	4.73	4.60	4.83	
5th ~	Self-reliance (harvesting)	Launch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Village Development Project		January	0.60	3.82	3.80	3.83	
		Comple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econd half	0.60	3.82	3.80	3.83	
		Self-reliance post-management project		nonscheduled	0.00	5.00	5.00	5.00	
				average	4.28	4.19	4.35		

† The academic experts' were selected based on the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associated with Rural Community Building

‡ The practical experts indicate the practical Rural Community Building managers working for fields

확보하여, 농촌협약 추진 때에는 행정협의체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방이양으로 읍·면 행정조직의 활용도 중요하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읍·면 행정의 역할로 본청뿐 아니라 해당 마을이 속해 있는 읍·면 담당 공무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군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어려운 갈등관리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관계 직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자체 시행사업의 연계와 민간조직의 시설운영에 읍·면 공무원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시설운영 실태 점검에 대한 업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읍·면 공무원은 현장직원이 가능하고 주민과 함께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실무 기술적 지원,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안내창구 역할, 담당부서-중간지원조직으로 연계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읍·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역량강화교육(필수)을 개설하거나, 필수교육 이수를 이양사업 선정 조건에 명시하는 의견과 마을 리더와 참여 확대를 위한 담당자 교육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읍·면행정복지센터 전담 담당자 지정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읍·면에는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 구성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해 이 분야를 잘 이해하고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중간지원조직 구성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농촌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심화교육, 문서작성, 디자인 교육, 계획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담당부서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시·군 간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는 역할, 담당부서-컨설팅-지역민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추진체계의 중추적 역할 담당, 관할 시·군의 인적, 물적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장지원 체계강화를 위한 상시 활동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사업 신청 이전에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소액사업을 평가하여 중·대규모의 신규사업 평가시 점수(가감점 형식)로 반영하는 방안과 소액사업 추진성과 평가회 등을 통해 포상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사업준공 이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정밀실태조사(회계감사, 수익금 배분 등)와 부진지구 모니터링과 지원업무, 광역 중간지원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을 통해서 활성화대학과 평가회 운영, 경남도 차원의 전문가 풀 조성 및 지원으로 현장포럼, 마을만들기 등 전문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 개선방안 도출

이상의 마을만들기사업 현황과 완료지구 대상 설문조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현황, 다른 지역 사례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가. 추진단계 방향

1) 주민참여 증진

사업과 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주민(마을리더)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력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한다.

2) 효율적·체계적 추진체계 구축

주민교육-사업추진-사업완료 후 자립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계의 진입 기간을 보완한다.

3) 행정(읍면)-중간지원조직(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민(사업지구)의 소통체계 구축

민관협치 실현과 소통 증진,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여주체의 역량강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읍·면 조직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구축을 통해 연도별 정성적, 정량적 성과목표를 달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성과목표의 재설정 또는 새로운 성과지표 추가 등 실정에 맞는 운영으로 정량화된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이는 신규지구 선정과 완료지구의 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서 읍·면 행정조직의 현장지원 역할이 중요하며, 마을만들기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마을만들기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추진으로 이양됨에 따라 추진체계에서 담당과 역할 변화가 발생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세부 운영과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읍·면 행정의 활용이 필요하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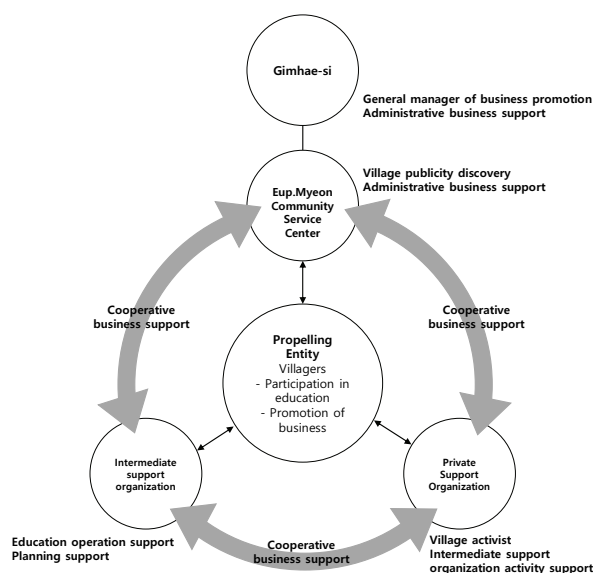


Figure 3. Rural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김해시는 ‘생기발랄한 마을만들기사업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중간지원조직인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행정-중간지원조직-민간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크지만, 행정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의 협력과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이양 전 김해시 담당부서에서 지도와 감독, 마을 발굴, 행정자료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면, 지방이양 이후에는 읍·면 행정조직에서 관련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변화된 지방이양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읍·면 행정조직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내 역할 강화를 통해 행정부문의 업무역량을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은 교육과 계획수립 부문을 집중 운영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의 단기적 업무 효율 향상과 중장기적 마을자립 확대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읍·면 행정조직의 적극적 참여로 해당 인력의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역량향상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관계자의 역량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읍·면 행정조직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확대와 행정-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 업무지원으로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사후관리 개선방안

기존 사후관리는 활성화단계에서 컨설팅을 통한 다른 부처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비-진입-발전-자립단계의 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① [물리적 지원 프로그램] 시설물 개선·보수
사업지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 완료지구에 대해 마을 소유 또는 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시설물의 노후화로 개보수와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마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②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타공모 사업연계(유지)
사업 완료지구의 운영을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이외의 경상남도 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행복공동체, 주민참여예산, 어르신복지시범실천사업, 농촌융복합사업 등 다른 부처의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③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시설물 운영관리·법인구성 컨설팅
사업 완료지구 대상으로 사업의 유형에 따른 법인구성 컨설팅과 기존의 시설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 컨설팅 등 보다 세부적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료지구별 맞춤형 활성화 컨설팅 진행한다.

④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협약 체결 컨설팅
추진·완료지구 대상 마을-마을, 마을-기업, 마을-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과 업무를 지원하고, 상호교류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⑤ [제도적 지원 프로그램] 마을사무장 제도·간사 지원
사업 완료지구 대상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사업추진 전문성을 가진 마을사무장으로 활용해 사업 추진력 확보가 필요하다. 다른 사업과 연계(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협약 등) 또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하여 사무장 채용에 따른 마을 내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김해시를 대상으로 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재구성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의 개선방안과 사후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는 지역 내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선별하고 교육과 사업추진, 활성화 단계로 준비단계를 포함하여 총 6단계의 프로세스를 5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서 거버넌스의 세부 프로그램별 역할과 기능은 드러나지 않으며, 읍·면 행정의 역할은 사업 신청접수, 행정업무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의 경관과 환경 등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마을과 주민들의 인식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음 세대가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

3. 다른 지역의 사례분석 결과, 이들 사례는 기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지침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활용과 소통, 체계적 운영, 읍·면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마을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수, 마을사무장 지원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사후 운영관리체계 개선안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도 전체 평균은 4.28점이고 표준편차는 0~0.94점으로 나타나 도출된 개선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자립단계 ‘사후관리 사업’ 항목은 전문가 모두 5점으로 응답해 중요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주민 등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단체장 변경 등으로 사업이 단절되어서는 안 되며, 마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읍·면 공무원은 현장지원이 가능하고 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안내창구 역할과 담당부서-중간지원조직을 연계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마을만들기사업 성과목표를 구축하여 연도별로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고, 성과목표의 재설정 또는 새로운 성과지표 추가 등 변화에 대응하여 정량화된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신규지구 선정과 완료지구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 성과목표를 구축하여 정량화된 자료확보로 신규지구 선정과 완료지구의 사후 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지역 사례들과 대상지구를 추가 조사하고 분석하면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 주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4년 도입된 이후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2012년)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015년)으로 변경됐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9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2 계층)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1·2 계층 외)으로 사업유형이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주2)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지역은 113개 시·군(어촌지역 10개 시·군 제외)이다.
 - 주3)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했다. 특히,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포럼이 예비단계 이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2019년 이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발전단계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제외되고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마을개발(3개 분야 통합)’로 개편됐다.
 - 주4) 지역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민간조직, 마을기업 등), 중간지원조직 등
 - 주5) 농촌협약: 농촌 공간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보존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에서 정주여건 개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자체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농식품부와 함께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 한도로 패키지로 지원한다.

References

1. Choi, Y.W., Park, H.Y. and Y.J. Kim, 2013, An Estimation of the Standard Cost of Project Management of Empowerment Sector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Journal of Korea Society of Rural Planning, 19(3), 131-144.
2. Kim, Y.J, Eun, H.C., Choi, Y.W., Park, H.Y., Lee, Y.K., Choi, M.H. and H.M, Kim, 2014,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Complete Reg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 21.
3.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2014, Sourcebook of Rural Development Project Workshop 2015 (in Korean: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관계자 워크

- 습 자료).
4. Choi, Y.W., 2015, Designing Optimal Workload and Cost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Reinforcement Project,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2.
 5. Lee, S.J., Jang, S.H. and K.H. Han, 2022, 2022-04, A Study on the Promotion of Rural Conventions in Response to Decentralization (in Korean: 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안 연구), Jeonbuk Institute, JThink Repository, 3-4.
 6.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2019, Plan of Rural Development Project 2019 (in Korean: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계획).
 7. _____, 2022a, Plan of Rural Convention 2022 (in Korean: 2023년도 농촌협약 추진계획).
 8. _____, 2022b, Rural Development Project Presentation Materials 2023 (in Korean: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9. 4 study sites village preliminary-master plan (Sinjeon-maeul, Hallim-myeon; Seogu2-maeul, Jinyeong-eup; Hachon-maeul, Jillye-myeon; Daegam-maeul, Sangdong-myeon)
-
- Received 31 October 2022
 - First Revised 21 November 2022
 - Finally Revised 22 November 2022
 - Accepted 24 November 2022